



연 합 감 리 교 회 핸드 북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ANDBOOK

그러므로

가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함께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pen hearts. Open minds. Open doors.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 된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교인들은 웨슬리의 유산을 나누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전 세계적인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고자 하는 선교적 사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대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각 개체교회의 한계를 넘어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4만 3천여 교회를 통하여 지역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총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총을 미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천국 잔치의 풍성한 삶을 날마다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모든 일을 보며 기뻐합니다. 이 핸드북에는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과 구조와 선교 활동에 대한 정보들이 소개됩니다. 이 책자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연대가 교회의 사역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여러분이 원하는 평화가 있고, 의미가 있고, 희망찬 미래가 있는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브루스 오 감독
총감독회 의장

목차

연합감리교인이란.....	4
연합감리교회 신앙선언	4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6
생명력이 있는 교회-연합감리교회의 선교적 비전	7
4대 선교 과제	8
연합감리교회 기본 구조	16
총감독회	17
감독구.....	18
연대사업협의회와 총회 기관들.....	22
연합감리교회: 연결된 교회.....	29
우리의 역사: 선교 하이라이트	30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 지역총회.....	34
수많은 축복에 감사하며	37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38
연대헌금이란?	39
자주 묻는 질문들	47
용어사전	48
효과적인 소통.....	52
연대 헌금에 관한 자료	54

연합감리교인이란?

연합감리교인이란 모든 연령과 국가와 인종의 사람들을 환영하는 세계적인 교단인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기로 약속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신앙선언

연합감리교인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통해 요약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은 평화와 온전을 이룰 수 있는 삶의 길을 지키시고 계시하시며,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로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와 모든 피조물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권능 주셔서 우리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의 내재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이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며,
-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며,
-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만드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앞으로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도구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 사람들이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례와 성만찬의 예식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고 양육받는 곳입니다.
-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예배, 기도, 성경공부, 친교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양육받는 곳입니다.
-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빛이 드러나고 악과 불의와 죄를 이기는 곳입니다.
-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상의 고통 받는 곳을 찾아가 소외된 사람들과 잊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함을 믿습니다.

- 신앙과 실천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담겨있고,
-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주된 근거 자료이며,
- 믿음의 공동체에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공흠과 공의, 풍성함과 평강의 하나님 통치에 의한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통치로 오늘날 이루어질 첫 열매들을 기대하며,
- 죄와 고통과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되어 새롭게 창조를 발견하고,
-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시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됨을 축하하며,
-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피조물에 미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 케네스 카더 감독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은혜의 성약 속에 살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에 참여하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 중에 기도한다.”(연합감리교회 장정 2016, 제 102조, “우리의 교리적 유산”)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에 뿌리를 둔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과 자비이다. 이 사랑과 자비의 선물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에베소서 2:8~9; 표준새번역 개정판)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감리교회 운동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적 은혜, 칭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했다. 다른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신앙관을 공유했지만, 웨슬리 목사가 감리교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을 연결하여 정의했다고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전한다.



선행적 은혜

연합감리교인은 선행적 은혜란 우리가 깨닫기 전에도 모든 사람을 이미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인간의 행동이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 선행적 은혜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이나, 또한 거부될 수 있다. 선행적 은혜는 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위해 간청하거나 애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이키시며(회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신다.

의롭다 하시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신앙인들에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신다고 믿는다.(연합감리교회 장정, 2016, 제 102조) 요한 웨슬리 목사는 은혜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가르쳤다. 칭의(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바르게 변화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리스도의 제자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구원의 여정은 이러한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데, 우리는 이를 “회심”이라 표현한다. 회심은 믿음과 영적인 모습과 삶의 방식 변화를 포괄한다. 회심의 체험은 예고 없이 갑자기 급변하는 변화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쌓이는 변화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회심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심의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로마서 8:16b)을 깨달아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심을 믿는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웨슬리 목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화” 혹은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정의한다.

웨슬리 목사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칭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믿었다. 웨슬리 목사는 이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가 걸으신 길을 가는 것”이라고 묘사한다.(연합감리교회 장정, 2016, 제 102조)

웨슬리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실수나 약점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자라나고 우리의 죄성은 줄어들며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우리의 믿음만이 구원에 꼭 필요한 유일한 응답이지만, 믿음과 선행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인간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웨슬리 목사는 총회 규칙을 통해 구원은 선행을 통해 증거된다고 말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연합감리교회의 선교적 비전

“연합감리교회가 선교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회 구조를 변혁하며, 성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인도하신다.”(연합감리교회 장정, 2016, 제 121조)

2016년 총회는 원대한 비전을 세워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인도하였다.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2020 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수를 배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기를 촉구한다. 총감독회와 연대사업협의회는 이러한 분명한 선교적 사명을 분별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세웠다.

그렇다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들은 연합감리교회의 제자들이 선교와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할 때에 자라나게 된다. 그들의 선교와 사역을 통해 가난이 퇴치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가 번영을 이루고, 어린이들이 타고난 가능성을 온전히 계발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통해 생명력을 갖게 된다.



실질적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연합감리교회는 각 교회의 생명력을 다섯 가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예배에 참석하는 제자들, 새로이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들, 소그룹에 참여하는 제자들, 선교의 현장에서 섬기는 제자들, 그리고 선교를 후원하는 제자들은 모두 교회의 역동성을 드러낸다.

우리의 선교적 영향력은 교인 수나 헌금 액수의 증가에서 드러나기보다, 생명력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 인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의 제자가 되도록 결단하는 삶에서 드러난다. *(연합감리교회의 재정적 헌신, 2017~2020)*

예수님의 지상 명령 완수하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태복음 28:19a)는 위대한 사명을 주심으로 그들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셨다. 이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개체교회와 신앙공동체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도록 힘을 실어 준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들은 우리의 선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됨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생동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연합감리교회의 행동 강령을 이루어 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모든 훈련과 지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개체교회와 각 총회 기관과 교회의 지도자들의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

연대사업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에이미 발데즈-바커 목사는 “우리가 각자의 공동체에서 세대와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증거하고 선교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한다.

4대 선교과제

- **교회 지도자 양성:** 모든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변화를 위해 참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 » 이번 4년간의 회기를 통한 목적은 3백만 이상의 사람들을 독려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 **개체교회의 성장과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제자로서 함께 자라나는 삶을 추구한다.
 - » 1백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사역:**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도록 독려한다.
 - » 이 사역의 목표는 생기있고 풍성한 삶을 위하여 400개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 **세계 보건 개선:** 교회가 교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참여한다.
 » 1백만 명의 어린이들을 구조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다. 함께 할수록 더 풍성해진다. 4대 선교과제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된다. 함께 연합하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 지도자 양성

모든 제자는 제자다워야 한다. 각 연합감리교인은 교회와 세상에 기여할 자신만의 은사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평신도 및 목회자 지도자들을 필요로 한다. 교회 지도자들의 역량은 교회 안에서 잘 나타나지만, 교회 밖에서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만 한다.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사명이라고 의식하게 될 때 모든 제자의 지도력이 충분히 발현될 것이다.

“교회를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시다.”
 - 주니우스 도슨 목사

2016~2020년 회기 동안 총회 고등교육사역부의 최우선 과제는 교단 전체적으로 사명의식을 함양하는 일이다.

고등교육사역부의 이사회와 임직원들은 사명을 의식하는 문화를 함양하고, 각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이룰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일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믿음이 형성되고 양육되는 개체교회에서 시작된다. 이는 개체교회가 사명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이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계발하도록 돕는 일을 포함한다. 고등교육사역부는 다른 총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부름 받음: 하나의 말씀, 다양한 방법”이라는 공보, 교육 및 예배 자료 모음집을 개발하였다. 이 자료 모음집은 연합감리교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내용을 분별하고, 그러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돕는 자료이다.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지속해서 다가가며 그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고 있다. 총회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청년팀이 함께 사역해 왔다.

총회 고등교육사역부의 총 책임자인 김 케이프 목사는 “이는 젊은이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감을 의미합니다”라고 전한다. 2015년에는 18~26세의 청년 475명이 연합감리교회의 집사목사(deacon)와 장로목사(elder)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들의 소명을 분별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2016년에는 578명의 젊은이가 NEXT 16에 참여하였다. 3일간에 걸



쳐 치러진 이 행사를 통해 청년들은 평신도 혹은 목회자로 부르심에 대해 분별하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내는 방법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수 사역은 평생 갖게 될 여정이기에, 목회자들이 활력과 기쁨과 필요한 자질들을 개발하기 위해 목회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동안 많은 연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전략과 구조를 개발해 왔다. 그중 한 예로 텍사스 연회의 Center for Clergy Excellence를 꼽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양회와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 센터의 프로그램으로는 “소생”(Renew)과 “회복”(Refresh)이 있다. “소생”은 결혼한 목회자 부부를 위한 수양회이고, “회복”은 목회자들에게 5년마다 양육과 성숙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의 보조금으로 백만 불이 넘는 기금을 지출하였다. 2015년에는 백만 불의 기금을 73종의 보조금으로 22개국을 후원하였다.

총회 고등교육사역부는 해외연회의 지도자들을 계발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 총회는 해외지역총회의 신학교육을 위한 예산을 두 배로 증가시켰다. 2014년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지역의 11개국의 신학교육을 위해 총 57개

보조된 프로젝트들은 개체교회 목회자 양육, 신학교 교수 양성, 전자책 제공, 교과과정 개발 및 도서관 기금 등을 포함한다. 해외지역총회의 50% 이상이 연장교육을 위해 고등교육성직부가 제작한 온라인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

고등교육부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현재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도 성은 베트남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에 지원하기 전에는 연합감리교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같은 학교의 목회학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하였다. “제게 중요했던 건 연합감리교회가 여성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웨슬리 대학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 학교를 택하셨던 것이지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웨슬리대학은 베트남에서 연합감리교회 개척자들의 신학적 훈련을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의 현재 임무는 베트남 교회 지도자들에게 베트남의 상황에 알맞은 신학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베트남: 차세대 지도자 양성,” 총회 세계선교부, 2014)

새로운 교회 개척과 개체교회의 성장을 위한 사역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헌신한다. 신앙공동체란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참여하고, 파송하는 공동체이다. 신앙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새로운 제자를 양육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더 전도한다. 고등교육부의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초점을 둔다.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하고 현존하는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환대와 모든 사람을 환영함으로 세상에 다가간다. 이러한 예로 시카고 지역의 어반빌리지라는 교회를 들 수 있다. 어반빌리지의 목회자인 브리트니 아이삭 목사는 “우리는 3백만 명의 인구가 모여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3백만의 인구가 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고립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도시에서 사람들의 삶에 다가갈 때 성공적이고 역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어반빌리지는 교회를 공동체로 새롭게 정의한다. 어반빌리지는 건물이 아니다. 상당수의 밀레니얼이 참석하는 다세대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극장, 실버타운 혹은 신학교에서 모인다.

아프리카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생명력과 추진력

라이베리아에 있는 스테반 트로웬 낙베 연합감리교회는 2017년 3월에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의 담임인 매튜 자이아 목사는 교회가 지역사회로 흩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 교회의 50주년을 기념하였다.

자이아 목사는 “50년이란 세월은 그동안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에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병원과 감옥, 빈민촌에서 약물 중독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그 교회는 다목적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50주년을 기념하는 한 달 동안 5만 불의 건축헌금을 모금했다. 자이아 목사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독려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도록 여지를 두었다. 이는 자신들의 50주년 기념이 지난 날의 역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온 선조들의 용기를 기억하기 때문이다.(2017년 3월 20일 자 *Circuit Rider*) 짐바브웨에서는 인너시티 하라레 연합감리교회가 아프리카 교회의 생동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현재 1,500명의 교인과 함께 교회는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다. 2017년 1월에 교회는 100명의 교인과 함께 새로운 지교회를 세웠다. 3개월 이내에 모교회는 새로





운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떠난 교인들을 새 교인들로 채우게 되었다.

미국과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세우고 있다.

일례로, 버지니아 연회는 라이베리아의 북서쪽 지역에 볼포루 선교기지를 후원한다. 2016년 3월에 라이베리아의 교회는 3.6에이커의 대지에 학교 건물과 병원과 180여 명의 교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선교지로 봉헌했다.

2016년 총회가 추후 4년간 백만 명의 새로운 제자를 양성하는 목표를 공표했을 때 이러한 도전을 감당하는 임무 중 큰 부분이 총회제자훈련부에 주어졌다. 제자사역부는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개체교회와 연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책임을 진다.

제자사역부의 총무인 주니우스 도슨 목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교회를 돕는 제자사역부의 계획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그는 이사회에게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은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가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이는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의 지상 명령이라는 성서적 가르침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했다.

예수의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고 지시한 명령이다.

도슨 목사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방향을 현재 교회 기관을 유지하는 일에서 예수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초점은 세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한다:

- 개체교회에 제자 양육 시스템을 향상시킨다.
- 선호하는 종교가 없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접할 기회를 증진시킨다.
- 해외지역총회에 새 교회 개척을 위한 자료를 지원한다.

제자사역부 이사회 임원이자 짐바브웨의 에벤 카와티와 감독은 교단의 미래에 대한 의심과 비관론에 반대한다. 그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곳에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희망이 있음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사역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이웃과 함께 걷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부르심이다. 우리는 가난을 창출하고 지속시키는 잘못된 사회적 제도와 구조에 도전하여 변화시키는데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교인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동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더욱 희망찬 기회를 줄 수 있다.

오웬 로스 목사는 2002년에 달라스의 러브필드 북쪽에 위치한 바크만 레이크에서 스페인어권의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 개척을 위해 파송을 받았다. 그의 파송을 통해 이 지역 공동체는 변화하였지만, 긍정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황폐한 건물들, 스트립쇼를 하는 클럽과 범지는 수백 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이들에게 매일 지속되는 현실이 되었다. 북텍사스연회의 교회 개척은 도심 지역에 크리스천 공동체를 창출하는 새로운 도시 전략의 일부가 되었다.

이 기획의 의도는 런던 시민들을 섬기기 위해 런던의 오래된 무기 공장을 기지로 사용하는 요한 웨슬리 목사의 모델을 따르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회가 처음 내건 교회의 이름은 바크만 공장이었고, 후에 그리스도의 공장 혹은 라폰다시 옹데크리스토라고 불리게 되었다.

젊은 로스 목사는 크나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는 스페인어에는 능통했지만, 지역 주민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했다. 로스 목사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첫 성경공부를 가졌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파트 건물의 세탁실 위의 창고로 이전했다.

2012년에 그리스도의 공장 교인들은 많은 협력 교회들의 도움을 통해 빛 없이 자신들의 건물을 갖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로스 목사는 일찍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목회는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로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The Rev. Owen Ross, back row, left, helps lead a group bringing the message of immigrant rights to Texas' State Capitol.

이 교회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교회 노동자 연합을 결성하게 된다. 이 교회의 노동자 연합은 일군의 개인 사업자들이 주변 학교의 도서관을 후원하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직업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 수년간, 교회 노동자 연합은 댈러스 지역에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이 밀집된 학교에 2만여 권의 책을 모아 조달했다. 로스 목사는 이민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역사



회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며, 각 주와 미국의 수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리스도의 공장교회 목회는 영어와 스페인어의 이중언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생동감이 있는 예배와 더불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방과 후 학교와 여름 캠프와 그들의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성인 교육 수업과 성경공부 및 상담 사역을 제공한다. 로스 목사는 이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큰 그림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목회와 런던에서의 웨슬리의 공장 사역의 모델은 델러스의 그리스도 공장교회의 사역을 통해 교회의 공휴, 정의, 제자화의 사역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전인적인 변화를 위한 사역이 되게 하였습니다.”

쉐이즈 오브 그레이스(Shades of Grace) 교회

테네시주의 킹스포드에 위치한 쉐이즈 오브 그레이스교회도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회이다. 이 교회의 교인 중 과반수가 집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교회의 월 쉬웨이 목사는 “연합감리교회는 ‘열린 마음, 열린 생각, 열린 문’이란 표어를 제시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표어에 걸맞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한 교인은 “그 교회 교인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아픈 사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만, 사회에 짐이 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전한다. 킹스포드의 다른 교회들은 교인들이 보건국과 같은 공공기관에 오는 차편을 제공해 주어 출생신고서나 기타 중요한 서류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외에도 일상에 필요한 일들을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평상시에 대기하고 있다.

극진한 환대

난민들이 적개심이나 폭력을 경험하는 곳에서 연합감리교회가 “극진한 환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독일 지역의 로즈마리 웨너 증경 주재감독은 전한다. 웨너 감독은 “많은 교회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편과 제가 사는 하이델버그 근교의 작은 교회는 이란에서 망명한 부부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세계 보건 개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런데도 어린이들은 5초에 한 명씩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연합감리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세계기금(Global Fund)이라는 국제적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2035년까지 모든 이들의 보건을 크게 개선한다는 큰 계획에 따라, 우선 2020년까지 1,500만 명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연합감리교회의 교인들로서 우리의 목표는 교육과 보건 서비스 및 각종 의료혜택을 통해 백만 명의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일이다. 교단적으로는 보건 개선을 위한 사역에 초점을 둔과 동시에, 전 세계의 교회들은 이러한 노력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안들을 창출하고 있다. 세계선교부의 세계보건국의 국내 건강 프로그램 매니저인 사브리나 로저스는 “교회는 보건 개선을 위한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일부 질병들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크리스틴 아론

풍성한 건강: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의 약속은 각 교회와 지역사회의 보건을 개선하는 일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고자 한다. 세계선교부의 목표는 1만 교회를 연합하여 교인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각 지역에 필요한 보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건강증진, 안전한 출산, 모유 수유, 균형 잡힌 영양공급 및 어린이 질병 예방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계선교부는 보건 개선을 위해 개체교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들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의 예로는 교회의 친교 메뉴의 변화나, 어린이 활동에 운동 시간을 추가와 영양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버지니아주 댄빌에 있는 페어뷰 연합감리교회는 '1만 교회 도전'에 처음으로 참여한 교회 중 하나이다. 페어뷰 교회의 돌봄과 건강 사역의 디렉터인 크리스틴 아론은 간호사라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다른 이들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게 된다고 전한다. “나는 아픈 환자들을 매일 봅니다. 그들의 질병의 일부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라고 그녀는 밝혔다.

페어뷰 교회는 혈압 측정 서비스를 매달 제공하고, 일 년에 한 번씩 건강박람회를 개최하며, 성경학교 기간 동안 체육 활동을 강조한다. 건강박람회는 가을 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지역사회 행사로, 교회의 지역 봉사활동의 일환이 되기도 한다.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교단은 지난 7년간 7천만 불의 기금 마련을 통해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2016년 총회에서 그 성과를 기념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음을 잘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말라리아로 인한 죽음을 예방한다는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이 세운 목표는 계속된다. 총회 세계선교부 토마스 캠퍼 총무는 “지금까지는 말라리아 없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꿈꿔 봅니다”라고 선언했다.



연합감리교회의 기본 구조

연합감리교회의 헌법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헌법 구조

연합감리교회 장정의 1부에 명시된 교회의 헌법은 연합감리교회의 구조에 대해 정의한다. 헌법은 총회, 총감독회와 사법위원회 각 기관에 적합한 책무를 부여하며, 이 세 기관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총회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교회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총회는 6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같은 수의 목회자와 평신도로 이루어진다. 총회는 연대적 사항에 관련된 법안을 결정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4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총회 이외에도 특별총회로 모이기도 한다.

헌법에 따라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규정하고 수정하는 의무를 진다:

- 등록 교인의 자격 요건 및 특권과 의무;
- 목회자의 의무;
- 지역총회, 해외지역총회, 연회, 선교연회 (및 선교지), 지방회, 구역회 및 교인총회의 권리와 의무;
- 교회의 행정업무 조직과 진행;
- 감독의 권리와 의무.

총회는 교단의 찬송가와 예배서를 제정하며, 교단적인 모든 연대 사역을 발의하고 지시하며, 교회 운영을 위한 기타 법률들을 제정한다.



총감독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까”(새번역)라고 기록한다. 감독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다면 감독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감독들은
교회의 방향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에 따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디도서 1:7)이다. 장정에 따르면, 그러한 청지기인 감독의 사명은 교회의 “영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감독들은 교단이 총회에서 세워진 입법안을 잘 이행하고, 프로그램과 규칙과 규정들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감독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가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감독들은 교단의 방향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감독들은 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지키고, 제자를 양육하도록 가르치고, 신실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관장하고 돕는” 책무를 갖는다.

감독들은 각자가 섬기는 연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하고, 사역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이끄는 책무를 지닌다. 총회가 제정한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 책임도 있다. 각 연회를 주재하는 책임자로서, 법률적 논점의 판결을 내리는 책임도 수행한다.

총감독회는 모든 현직 및 은퇴 감독들로 구성된다. 총감독회는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감독하고 전체 교단의 연대에 영적인 지도력을 제공한다.

감독은 미국 내 지역총회와 해외지역총회에서 선출되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연회들로 구성된 지역으로 보직된다.



각 감독은 보직된 지역의 선교와 사역을 감독하고, 목회자들을 사역지로 파송한다. 감독들은 다른 교단 및 종교 단체와의 종교 간의 관계를 협력하며, 기독교의 일치성을 위해 협력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umc.org/councilofbishops를 참조.



사법위원회

사법위원회는 교회법에 대한 해석과 교회 내의 모든 소송에 대한 합헌성을 결정한다. 총회는 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총인원과 자격, 임기, 선출 및 결원을 총원하는 방법 등을 결정한다.

현재, 사법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9명의 평신도와 교역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위원들이 심사하는 소송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총감독회, 연회, 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회부된다. 헌법에 의해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판결이 된다. (장정, 57조 제 3조)

감독구

감독은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에 의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연회로 구성된 감독구로 보직된다. 감독은 각자의 감독구 안에서 거주하며 보직된 감독구의 교회를 치리하는 책무를 주로 수행한다.

미국 지역총회

교회의 헌법은 미국 내의 지역총회에 구체적인 권한과 임무를 부여한다. 지역총회는 동수의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되는데, 각 연회의 대표들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총회 대의원들과 지역총회 대의원을 포함한다.

5개의 지역총회는 4년에 한 번 동시에 모여 감독을 선출하고 각 연회에 선임한다. 지역총회는 교회의 전도, 교육, 선교 및 자선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지역총회의 사역과 기관들을 위해 자원을 제공하는 헌법상의 책임을 진다.

지역총회의 위원들은 총회 기관 및 이사회 위원들을 선출한다. 지역총회는 각 연회의 영역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다.

총회 기관

총회 기관들은 총회에 의하여 창출되며, 총회가 책임 관리를 한다. 장정에 따르면 총회 기관들은 교단의 연대 사역의 일부이며, 교단 내 모든 관계를 연결 짓는 연계망이다.

총회 기관들은 전 세계적인 사역의 연결점을 제공하고 개체교회 및 연회의 영역을 넘어 필요한 서비스와 사역을 제공함으로써 개체교회의 사역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총회는 교단의 선교와 사역과 자원들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연대사역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연대사역협의회는 모든 사역과 자원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다.

교회의 비전과 자원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연대사역협의회는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사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구역회 및 교인 총회

장정은 개체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육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지라고 명시한다. 지역사회에 세워지지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부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된다.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고백 하며,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서약을 하는 곳이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교회로 구성된 목회 구역은 안수를 받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목회자들이 파송되는 임지이다. 구역회는 개체 구역을 관장하는 기구이다; 임원회는 구역회의 책임 집행기관으로서 연중 내내 교회의 사역을 인도한다.

연회

연회는 교회의 기본적인 기관이다(헌법, 제 33조).

“연회”란 개념은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설교가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해 소집했던 [감리교 운동의] 초창기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기관과 그 기관의 모임을 모두 “연회”라고 지칭한다.

연회는 안수 후보자를 인준하고 목회자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연회는 개체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개체교회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모든 사역을 위한 연결점을 제공한다.(제 601조)

연회는 일 년에 한 번 모이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 연회가 소집될 수 있다. 감독은 연회를 주재하고, 연회의 시기를 결정한다.

연회의 구성원은 장정에 명시된 목회자와 구역회에서 선출된 같은 수의 평신도 및 [연회의 여성교회 및 남성교회의 회장들과 같이] 장정에 따라 그 임원직에 근거하여 지정된 위원들로 이루어진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구성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 기금이 제공된다. 연회는 목회자의 자격인정과 허입 및 장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총회, 지역총회 및 해외 지역총회의 목회자 및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하는 등의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지닌다.

연회는 각 연회의 영내에 있는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인도하고, 교회와 기관들이 세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자금을 후원하는 책무를 지닌다.

우리는 그 기관과
기관의 모임을
모두 “연회”라
칭한다.



해외/지역총회

아프리카, 유럽 및 필리핀 지역의 연합감리교인들은 그 지역을 관장하는 “해외지역총회”가 있다. 해외지역총회는 아프리카, 중남부 유럽, 콩고, 독일, 북유럽과 유라시아, 필리핀 및 서아프리카 지역을 포괄한다. 미국 내에서는 다섯 개의 지역총회가 있고, 미국 내의 감독들은 종신직으로 선출된다.

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

아프리카 대륙에는 5개의 감독구로 구성된 중부 아프리카 지역총회, 4개의 감독구로 구성된 콩고 지역총회 및 4개의 감독구로 구성된 서아프리카 등 3개의 지역총회가 있다. 중부 아프리카 및 콩고 해외지역총회에서는 감독들이 4년의 임기를 감당하도록 선출되며, 재선출을 통해 종신직의 감독이 된다.

서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에서는 감독들이 처음부터 종신직으로 선출된다.

유럽 해외지역총회

유럽에는 중남부, 독일 및 북유럽의 3개의 해외지역총회가 있다. 중부와 남부 유럽에서는 감독이 4년직으로 선출된다.

4년의 임기가 끝난 후에 해외지역총회들은 같은 감독을 종신직으로 재선출하거나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게 된다.

독일의 해외지역총회에서는 감독이 4년직을 위하여 선출되지만, 추가로 8년, 즉 초선과 재선을 모두 합하여 총 12년의 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선출 될 수 있다.

북유럽 지역에서는 감독들은 8년직으로 선출되지만, 재선을 통해 추가로 4년의 임기를 추가하여, 총 12년간 재임할 수 있다.

필리핀 해외지역총회

필리핀지역에는 3개의 감독구로 구성된 하나의 해외지역총회가 있다. 감독은 4년직의 “기간제 감독”으로 선출된다.

연대사업협의회와 총회 기관들

연합감리교회의 총회 기관들은 개체교회를 육성하고 전 세계의 사역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대사업협의회, 총회재무행정협의회, 연합감리교회 출판부와 그 외의 프로그램 기관들은 연합감리교인들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각 기관은 이사회가 운영한다. 지역총회와 해외지역총회에서 선출된 평신도와 교역자들이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총감독회는 이 기관들을 감독하는 책무를 나누기 위하여 감독들을 각 기관에 선임한다.

연합감리교회 연대사역협의회

- 교회의 비전을 확인하고 명확히 한다.
- 교단의 선교, 사역, 자원들을 관리한다.
- [교단의] 지도자들과 동역하며 총감독회와 협력한다.
- 정책과 절차를 만든다.
- 총회재무행정협의회와 협력하여 혹은 교단의 선교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책임을 진다.
- 지역총회와 해외지역총회에서 선출된 목회자와 평신도를 포함하고 교단의 각 인종 코커스와 총회 기관의 대표들을 포괄하여 교단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이메일: connectionaltable@umc.org

웹사이트: www.umc.org/connectionaltable

총회재무행정협의회

- 연합감리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현재 각종 이사회, 기관, 연회, 개체교회, 감독실 및 기타 교단의 다른 기관들을 위한 48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총회재무행정협의회는 교회의 선교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과 자료와 동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연합감리교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총회재무행정협의회는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선교적 임무를 행정적으로 돕는 사역을 감당한다.
- 총회재무행정협의회는 보다 많은 자원이 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교단 내의 모든 교회와 연결된 기관에게 서비스 수준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 총회재무행정협의회는 교단의 모든 일반 기금을 받아서, 지출하고, 회계 관리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교단의 법률문제와 권한을 보호하고, 교단의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여 출판하며,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들에게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합감리교회 재단을 통해 교회의 기금을 투자 관리한다.

이메일: gcfa@gcfa.org

웹사이트: www.gcfa.org

총회사회부

- 교회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한다.
- 사람들을 성서와 신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의사역에 참여하는 신앙공동체로 초대하고,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권면한다.
- 교회의 "사회원칙"과 총회가 승인한 사회정의 관련 결의문들을 홍보한다.
- 사회 변화를 위한 윤리적 가치와 구조적 대안과 전략의 장기적인 사회적 동향을 분석한다.
- 사회변화를 위한 윤리적 가치와 구조적 대안과 전략의 근본이 되는 장기적 사회현황을 분석한다.
- 사회정의를 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훈련하며,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만들기 위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보급한다.
- 사회적 실천과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교단의 최고기관으로서 미국 내 및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룬다.

이메일: gbc@umc-gbc.org

웹사이트: www.umcjustice.org

제자사역부

- 개체교회와 지방회 및 연회에 영적 성숙과 영성 개발, 묵상집, 교과 자료, 기독교 교육, 전도, 예배, 청지기 및 평신도 사역을 위한 지도력과 자료들을 제공한다.
- Path 1과 새교회 개척(New Church Starts)의 사역을 개발하고 관장한다.
- 청소년과 젊은이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장한다.
- 해외자료국을 통하여 토착적인 집필과 출판팀을 조직함으로써, 해외지역총회와 동역한다.
- 기도, 출판, 프로그램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국제적 사역 기관인 '다락방'의 업무를 관리한다.

이메일: info@UMCdiscipleship.org

웹사이트: www.umcdiscipleship.org

2016년 총회는 새로운 찬송가의 출판을 승인하였다.

주문형 출판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에 힘입어, 이제 연합감리교회는 개신교단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확장 가능한 찬송가를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개체교회는 각 교회의 사정과 필요에 맞게 찬송곡과 기타 자료들을 선택하여 인쇄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찬송가는 핵심자료와 추가자료의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연합감리교회의 예배와 정체성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와 찬송곡은 찬송가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킨다.

더욱더 많은 분량의 추가 자료는 각 교회가 지역사회에 연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서, 각 교회가 고유의 찬송가를 맞춤화할 수 있게 된다.

총회세계선교부

- 선교를 통해 교회들을 연결한다.
-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선교사들을 세계 각처로 파송한다.
- 자원봉사자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한다.
- 선교적 주도권을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한다.
- 가난으로 인한 질병들을 퇴치하고 세계 보건을 개선한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에 대처한다.
- 연합감리교회의 구호위원회와 교단의 선교 지원을 위한 특별지정헌금(Advance)을 통하여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사역을 감당한다.

이메일: info@umcmmission.org

웹사이트: www.umcmmission.org

총회고등교육사역부

- 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와 교역자 지도자들을 모집하고, 준비시키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해 연합감리 교회를 인도하고 섬긴다.
- 안수 및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적인 사역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을 준비시키고 지원한다.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안수 후보자 과정을 밟을 준비를 하는 후보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한다.
- 13개의 교단 신학교를 포함하여 미국 내 교단에 관련된 114개의 학교 및 대학들의 연계를 지원한다.
- 채플린, 학원 선교를 관장하는 웨슬리 재단, 초교파적 사역 및 교회에 기반을 둔 전 세계의 1,300여 개의 사역지의 연계망을 관리한다.
- 학자금 용자 및 장학금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연합감리교회 평신도와 목회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돕는다.
- 흑인대학기금, 교역자양성교육기금, 아프리카대학기금 및 기타 대학과 신학교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와 북미 지역에서 세계적인 평신도 및 목회자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일을 돕고, 해외 지역총회가 목회자를 양성할 기회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이메일: Communications@gbhem.org

웹사이트: www.gbhem.org

웨스패스(Wespath) 은급투자부 (이전 명칭, 총회은급의료혜택부)

- 연합감리교회의 원칙에 따라 투자와 은급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 장기저축, 퇴직금 적립계획과 연금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주요 금융기관이다.
- 목회자와 가족, 교단 기관들의 직원, 개체교회 및 연합감리교회 관련 기관의 평신도 직원들을 위한 건강, 장애, 사망에 따른 복지혜택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회역사보존위원회의 위원들은 새로운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 19세기의 노예폐지론자이자 성결 운동을 벌였던 지도자

길버트 헤이븐 감독의

1,000여 편의 편지를 수집했다.

이 자료는 www.gcah.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 10만 명 이상의 참여한 200억 불 상당의 자산을 관리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사회책임투자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이는 교단 기금 중 가장 크며, 미국 내의 연금 기금으로는 100권 안에 든다.
- 웨스패스의 투자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유익을 준다.
- 국외에서도 연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목회자의 안정적인 은급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지역총회 은급제도기획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후원한다.

연락처: www.wespath.org/contact

웹사이트: www.wespath.org

교회역사보존위원회

- 연합감리교회의 역사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자료를 현재의 교단과 미래의 교회에 제공함으로써 역사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한다.
- 일반인들과 학자들을 위하여 문헌 보관시설과 도서관을 관리한다.
- 전통적 문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여성과 소수인종/민족 및 다른 이들에 관한 역사적 기록 등을 강조한다.
- 모든 분야의 역사적 관점을 제공한다.
- 유색인종에게 문헌 기록학에 대한 교육을 돕기 위한 장학금을 제공한다.
- 연회의 문헌 보관시설 담당자들을 훈련한다.

이메일: gcah@gca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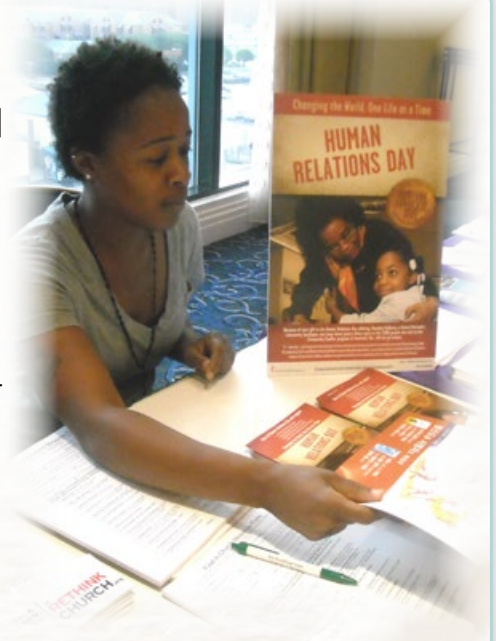
웹사이트: www.gcah.org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위해 세계적 교회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홍보와 마케팅의 요구를 맞춘다.
- 전 세계적으로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와 사역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 교단의 일반기금과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는 중앙 기관의 역할을 감당한다.
- 교단의 공식적인 뉴스 취재와 배포기관이다.
-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와 연계하여 교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도구, 제품, 자료와 훈련 등을 제공한다.
- 세계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반 시설 개발을 지원한다
- 교단의 공식적 웹사이트인 umc.org를 관리한다.

이메일: umcom@umcom.org
웹사이트: www.umcom.org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 교단 내에 가장 큰 신앙 조직이다.
- 전 세계의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권익을 옹호한다.
- 신앙의 성숙을 함양하고, 정의 구현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한다.
- 미국과 전 세계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모금하고 있다.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그 전신이 되는 기관들이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데에 자부심을 갖는다.

연락처: www.unitedmethodistwomen.org/contact
웹사이트: www.unitedmethodistwomen.org

총회인종관계위원회

- 모든 인종과 민족의 구성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사역과 복음 증거와 교회의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둔다.
- 연합감리교회가 리더십 개발과 문화적 역량의 훈련, 연구와 평가, 자료제공과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일치를 추구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 교단 내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포용과 인종적 평등과 생동하는 교회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전 세계가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을 섬기고, 교회가 인종차별을 없애는 노력에서 인종차별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한다.

연락처: www.gcorr.org/contact
웹사이트: www.gcorr.org

총회여권신장위원회

-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온전하고 평등한 책임을 지고 참여를 하도록 연합감리교인들을 독려한다.
- 교회 내의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로서의 여성을 옹호한다.
-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제도적 성차별에 대해 다루고 이러한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한다.
- 과거의 불의와 불평등을 바로잡고 미래의 차별을 예방한다.
-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다루며, 치유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인도한다.
-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반영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지침과 권고 사항을 개발한다.

이메일: info@gcsw.org and sexualethics@gcsw.org

웹사이트: www.gcsw.org and www.umsexualethics.org

총회남선교위원회

- 남성들이 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장려하고, 전도, 청지기 및 남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 교회 안과 주변 지역사회의 남성들을 향한, 남성들을 위한, 남성들을 통한 사역의 기회를 교회에서 만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남성 사역을 위한 전문가를 교육한다.
- [남성] 그룹들이 전국적인 기관들과 연계하도록 돕는다.
-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봉사를 위한 사역의 기회를 제안하고 증진시킨다.
- 개체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스카우트 사역, 4H 클럽 및 캠프파이어 프로그램 등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이메일: gcumm@gcumm.org

웹사이트: www.gcumm.org

연합감리교회출판부

- 연합감리교회와 기타 기독교 공동체에서 섬기는 목회자와 신학생, 기독교 교육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의 사역과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자료를 출판하고 보급함으로써 전 세계에 기독교 신앙의 성장을 돕는다.
- Abingdon Press를 통하여 교단 안의 모든 공식적 출판물, 기록 및 기본 양식들을 보급한다.
- 지도자들을 위한 온라인 자료와 온라인 공동체를 제공한다.
- 교회학교 자료와 교육 자료들을 출판한다.



- 자립 기관으로 기능한다.
- 안전한 웹사이트를 가진 Cokesbury의 판매부(www.cokesbury.com)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 각자의 구체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 미국 내에서 연락 가능한 번호 및 수신자 부담 전화 서비스, (800)672-1789로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이메일: customerhelp@cokebury.com

웹사이트: www.umph.org

총감독회

- 연합감리교회의 감독들을 통해 북미,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4대륙에 흩어져 사는 1천2백70만여 명의 다양한 환경의 교인들을 감독하고 영적 지도력을 제공한다.
- 연합감리교회의 현직 및 은퇴 감독들로 구성된다.
- 교회가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한다.
- 교인들이 교회의 목자로 섬기며 [사회의] 정의와 [교회의] 일치성을 위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하여 교회의 선교와 봉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키며, 격려하는 역할을 분담한다.
- 각자의 임지에서 임기 동안 주재하면서 각 연회와 해외지역총회의 사역을 지원한다.
- 다른 신앙공동체와 초교파적 관계를 맺도록 독려한다.
- 연합감리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전체 교단과 초교파적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예수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원임을 인지하도록 돕는다.
- 모든 인류 공동체의 일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지켜내도록 추구한다.
- 교단 내의 초교파적 지도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인 초교파적 기관들과의 관계를 해석한다.

이메일: cob@umc.org

웹사이트: www.umc.org/councilofbishops

사법위원회

- 공소 또는 합헌 여부 판정 신청으로 제기된 교단 공식기구, 즉 총회, 지역총회, 연회, 또는 해외지역 총회의 결정이나 청원 등의 합헌성을 판단한다.
- 교회의 공식적 기관들의 행위가 장정을 따르고 있는지를 심의한다.
- 주재감독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를 한다.
- 총회에 의해 주어진 다른 의무와 권한을 지닌다.

이메일: judicialcouncil@umc.org

웹사이트: www.umc.org/judicialcouncil



연합감리교: 연결된 교회

지방회

같은 지역의 교회들을 모아 선교와 사역을 함께한다. 지방 감리사는 지방에 속한 교회들에 리더십을 제공하고 목회자 파송을 돕는다.

감독구

감독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연회들로 구성된 지역으로 조직된다. 감독들은 담당 감독구에서 목회자들의 파송을 한다.

미국 내 지역총회와 해외지역총회

- ▶ 감독을 선출하고 선임한다.
- ▶ 연회와 감독구의 경계를 설정한다.
- ▶ 지역의 교회와 기관들을 지원한다.
- ▶ 총회 기관의 위원들을 선출한다.

총감독회

- ▶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현직 감독과 은퇴감독을 포함한다.
- ▶ 전체 교회를 감독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 ▶ 특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연회

- ▶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목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세운다.
- ▶ 목회자의 안수를 승인하고 개체교회를 지원한다.
- ▶ 목회자들은 연회의 구성원이 된다.
- ▶ 총회와 지역총회 혹은 해외지역총회의 대위원을 선출한다.
- ▶ 헌법 수정안의 표결을 한다.

총회

- ▶ 연합감리교회를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 ▶ 동수의 평신도와 목회자로 구성된 600~1,000명의 위원이 있다.
- ▶ 4년에 한 번 있는 정기총회나 그 외의 특별총회로 모여 교회의 멤버십을 정의한다.
- ▶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Deaconess) 및 가정 선교사 역자, 연회, 해외지역총회, 지방회와 구역회 및 교인 총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 ▶ 사법적 판결 과정에 공정성을 제공한다.
- ▶ 교회의 예산을 결정하고 연대적 현금의 우선순위를 책정한다.
- ▶ 교회의 총체적인 사역을 위한 이사회와 위원회를 세운다.

개체교회

"[개체교회는] 제자 양육이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사역지이다. (2016년 장정, 201조)"

"개체교회에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오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으로 표현하게 된다." (2016년 장정 제 201조)

Where laity hold membership

Elects at least one member to annual conference

연대사업협의회와 총회 기관

- ▶ 개체교회와 연회를 지원한다.
- ▶ 전 세계에 사역을 지원한다.
- ▶ 총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사법위원회

- ▶ 총회에서 선출된 아홉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 ▶ 총회 활동의 합헌성을 결정한다.
- ▶ 모든 감독의 사법적 결정을 검토한다.
- ▶ 교단의 사법부의 최고법원이다

우리의 역사: 선교 하이라이트

오늘날의 연합감리교회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있었던 세계 선교의 결과물이다. 이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식민지 주민들과 함께 미 대륙에 도착하였고, 곧 전 세계로 퍼져갔다. 오늘날 연합감리교회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주요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간단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1725~1750

옥스포드 대학의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에서 준회원 안수(1725)를 받은 3년 후에 사제(1728)가 된다. 요한 웨슬리와 그의 형제 찰스 웨슬리는 성공회 사제였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강한 성품과 믿음을 가진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다. 1729년에 찰스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소그룹을 조직하였고, 이는 후에 신성클럽으로 알려지게 된다. 요한 웨슬리는 이 그룹의 인도자가 되는데, 후에 그는 이 그룹을 이를 감리교회 운동의 첫 시작점으로 간주한다.

학식이 있는 사제였지만, 요한 웨슬리는 그의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한다. 1736년에 요한과 찰스 형제는 미 대륙에 있는 조지아로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선교여행을 떠난다. 후에 요한은 불명예스럽게 조지아를 떠나게 되지만, 미 대륙으로 향하는 선상에서 만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영국에 도착한 후, 1738년 5월 21일에 찰스가 먼저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요한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에서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체험을 하며 비로소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된다.

요한 웨슬리가 귀국하였을 때, 그의 친구이자 부흥사였던 조지 핏필드는 그에게 옥외 설교를 하도록 권유한다. 요한 웨슬리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조직하여 신도회, 밴드, 속회 등을 구성하였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한 평신도 설교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한다. 1744년에 요한 웨슬리는 첫 번째 연회를 개최한다.

1751~1775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웨슬리는 이러한 압력을 거부한다. 필립 오테바인, 프랜시스 애즈베리, 필립과 마가렛 엠버리, 폴과 바바라 핵이 미 대륙으로 온다. 뉴욕 웨슬리 채플(존스트리트 교회)이 문을 연다. 미국에서의 첫 연회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다. 윌리엄 워터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순회 설교자가 된다.

1776~1799

요한 웨슬리는 미국 독립혁명을 강하게 반대한다. 그는 미국 독립 이후에 미국 내에서 성만찬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진 미국 감리교도들에 대한 지도력을 잃게 된다. 그는 평신도 설교자 리처드 왓콧과 토마스 베이시를 미국 내에서 사역하는 평신도 설교자로, 토마스 쿡 박사를 미국 감리교회 감리사로 파송하는 대담한 조치를 한다. 쿡은 프랜시스 애즈베리로 하여금 웨슬리의 대리인 자격으로 자신과 함께 동역하도록 위촉하지만, 애즈베리는 미국 설교자들의 자율적인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다면 맡겨진 임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한다. 이러한 투표는 1784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연회에서 치러지고, 이를 기점으로 미(북)감리교회가 탄생했다. 첫 장정은 1785년에 출간되었다.

선교가 채널 제도, 프랑스, 스페인에서 이루어진다. 자유 흑인 소사이어티와 아프리카 감리교회는 필라델피아에서, 아프리카 시온감리교회는 뉴욕에서 시작된다.

1800~1825

이제 감독이 된 프랜시스 애스베리는 미국 감리교회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된다. 1808년에는 첫 번째 헌법의 초안이 마련되고, 출판사가 설립되고, 부흥회와 야외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게 된다. 애스베리의 재직 기간은 30년을 넘어 지속된다.(2016년 총회는 애스베리의 서거 200주년을 기념했다) 애스베리는 아파라치 산맥과 서부 개척지역에서 감리교회의 성장을 주도한다.

오터바인과 마틴 보엠은 그리스도 연합형제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다니엘 코거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는 해방된 노예들을 위해 감리교사회를 조직한다. 선교사들이 호주, 도미니카공화국, 감비아, 아이티, 인도, 시에라 리온, 남아프리카와 통가로 간다.

1826~1850

감리교회는 영적 대각성의 두 번째 물결의 일부가 된다. 순회 설교자들과 평신도 설교자들은 회심한 교인들을 연결시켰다. 속회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 모인 남녀 신도들은 교회와 속회를 설립하였고, 이들은 순회 설교자들의 정기적인 방문을 받는다. 주일학교운동이 번창하기 시작한다. 노예 문제는 교회를 분리하는 문제가 된다. [미국] 남부 지역의 대의원들은 1845년에 남감리교를 조직한다.

사회적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갈등이 지속된다. 감리교개신교회와 웨슬리안감리교회가 설립된다. 선교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다호메이(베냉), 피지, 독일, 가나, 사모아, 스웨덴, 스위스와 토고에서 시작된다. 멜빌 콕스가 미국감리교회의 최초의 해외 선교지인 라이베리아를 향해 승선한다.

1851~1875

나중에 남북의 교회들은 결국 다시 재기하게 되지만, 감리교회는 특히 남부 지역에서 남북전쟁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른다. 해방노예 원조공회와 유색인종감리교회가 조직된다. 감리교 감독회가 덴마크에서 조직되고, 북미 자유감리교회가 뉴욕에서 시작된다.

감리교개신교회는 헬레나 데이비슨을 여성 집사목사로 안수한다. 감리교회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핀란드, 하와이, 이탈리아, 일본, 케냐, 멕시코, 미얀마, 뉴기니, 노르웨이, 포르투갈 및 우루과이로 퍼져간다.

1876~1900

북감리교와 남감리교에게 있어 국내와 해외의 선교사역은 주요 쟁점이 된다. 선교사들은 과거 노예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운다. 여성들은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선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이사벨라 토번, 수잔 바우언핀드, 해리엇 브리튼과 행정을 담당할 벨 해리스 베넷과 루시 라이더 마이어가 국내와 해외 선교를 지원하도록 교회의 여성들을 독려한다. 평신도와 여성들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압력이 가해진다.

윌리엄 테일러 감독이 앙골라, 볼리비아, 칠레, 콩고민주공화국과 페루에서 사역한다. 제임스 토번 감독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사역을 개척한다. 이사벨라 토번이 아시아 최초의 여성 기독교 대학을 설립한다. 감리교 선교는 코스타리카, 쿠바, 헝가리, 한국,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푸에르토리코, 짐바브웨 및 러시아에까지 이른다.

1898년에 요셉 크레인 핫셀 감독은 당시 로디지아(현재 잠비아와 짐바브웨로 독립된 당시 영국 식민지국의 이름)에 있는 치렘바 산 위에 서서, 수백 명의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학교를 향해 산 아래 골짜기를 달려가는 모습을 꿈꾸게 된다.

1901~1925

감리교의 사회신경은 공장, 광산, 제분소, 공동주택과 기업 도시 등지에서 어렵게 살던 시민들의 형편에 대한 감리교도들의 격분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미 북감리교회는 사회신경을 도입하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 사회신경을 채택한 교단이 된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만연했던 사회복음 운동과 진보 정치의 영향을 받아, 교회는 1908년에 사회신경을 만들고 채택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번 수정되었으나, 이 사회신경은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에, 사회원칙 바로 뒤에 명시되어 있다.

교회들이 초기에 겪었던 분열은 아물기 시작한다. 1922년에 교단의 두 개의 분파가 복음교회로 통합한다. 자유주의적 개신교 신학과, 근본주의적 신학과, 신정통주의라 불리는 보수적 신학이 서로 접하면서 신학적 동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인들은 선교를 위해 힘을 합친다.

감리교 선교사들은 알바니아, 벨기에, 보르네오, 체코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자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만주,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세르비아 및 수마트라에까지 퍼진다. 과테말라 원시복음감리교회가 그 모습을 갖춘다. 요셉 핫젤 감독이 알제리와 튀니지에 선교를 시작한다.

1926~1950

교회들의 통합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북)감리교회, 감리교개신교회와 남감리교회가 통합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제안된 방법 중 하나는 연합된 교회를 지역총회라는 여섯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다섯 개의 지역총회는 지역에 근거한 지역총회이고, 중앙 지역총회는 인종에 근거한 것으로서 흑인교회들 및 미국 내 흑인들의 연회가 있는 곳을 포괄한다. 많은 반대 가운데, 이 제안은 수용된다. 1939년 4월, 세 개의 교단들은 하나로 통합되어 미국감리교회가 된다.

선교가 부룬디와 르완다까지 확장된다. 북부 아프리카 준 연회가 설립된다.

1951~1975

미감리교회는 지속적으로 다른 감리교 및 웨슬리 전통의 교회들과 가까운 관계를 추구한다. 1951년에 미감리교회는 세계감리교협의회를 창설하는 데 동참한다. 또한 세계 교회협의회 및 미국 교회협의회와 관계도 맺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 선교와 사역에 더욱 강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교회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커진다. 총회에서 중앙지역총회를 해체하자는 제안들이 상정된다. 1968년에 그리스도연합형제교회와 통합하는 제안과 함께 중앙지역총회를 폐지하자는 계획이 협의가 이루어졌다. 여성의 안수받을 권리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1956년에 여성들에게 안수받을 권리가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신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1968년에 감리교회와 그리스도연합형제교회가 통합할 때, 여성의 안수받을 권리에 대한 안건이 이 통합의 계획에 포함된다.

1968년 총회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설립 제안이 통과되고, 교회의 구조 조직을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기간이 이어진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대만과 잠비아에서 번성한다. 유럽감리교협의회, 남미 복음주의감리교회협의회, 부룬디 연회가 시작된다.

1976~2000

더욱더 많은 여성이 안수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마조리 매튜스가 최초의 여성 감독이 된다. 리온틴 켈리는 최초의 흑인 여성 감독이 된다. 최초의 아프리카 감독인 아벨 무조레와는 짐바브웨의 수상이 된다.

1988년에 핫셀 감독의 꿈은 이루어진다. 총회는 짐바브웨 올드무타레지역에 아프리카 대학의 설립을 인준한다.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위한 이 대학은 1992년에 설립되어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학교가 된다.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베트남에 교회들이 생긴다. 하인리히 볼리터 감독과 연합감리교회 구제위원회가 함께 코소보를 지원한다.

2001~Present

교회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며, 교회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및 미국에 사는 교인들과 연회로 구성됨을 더욱 분명히 자각해왔다. 유럽과 미국의 교인 수는 감소했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교인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교회는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의 차이에 의한 제약 없이 모든 사람이 교회의 삶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장정, 2016, 역사적 선언,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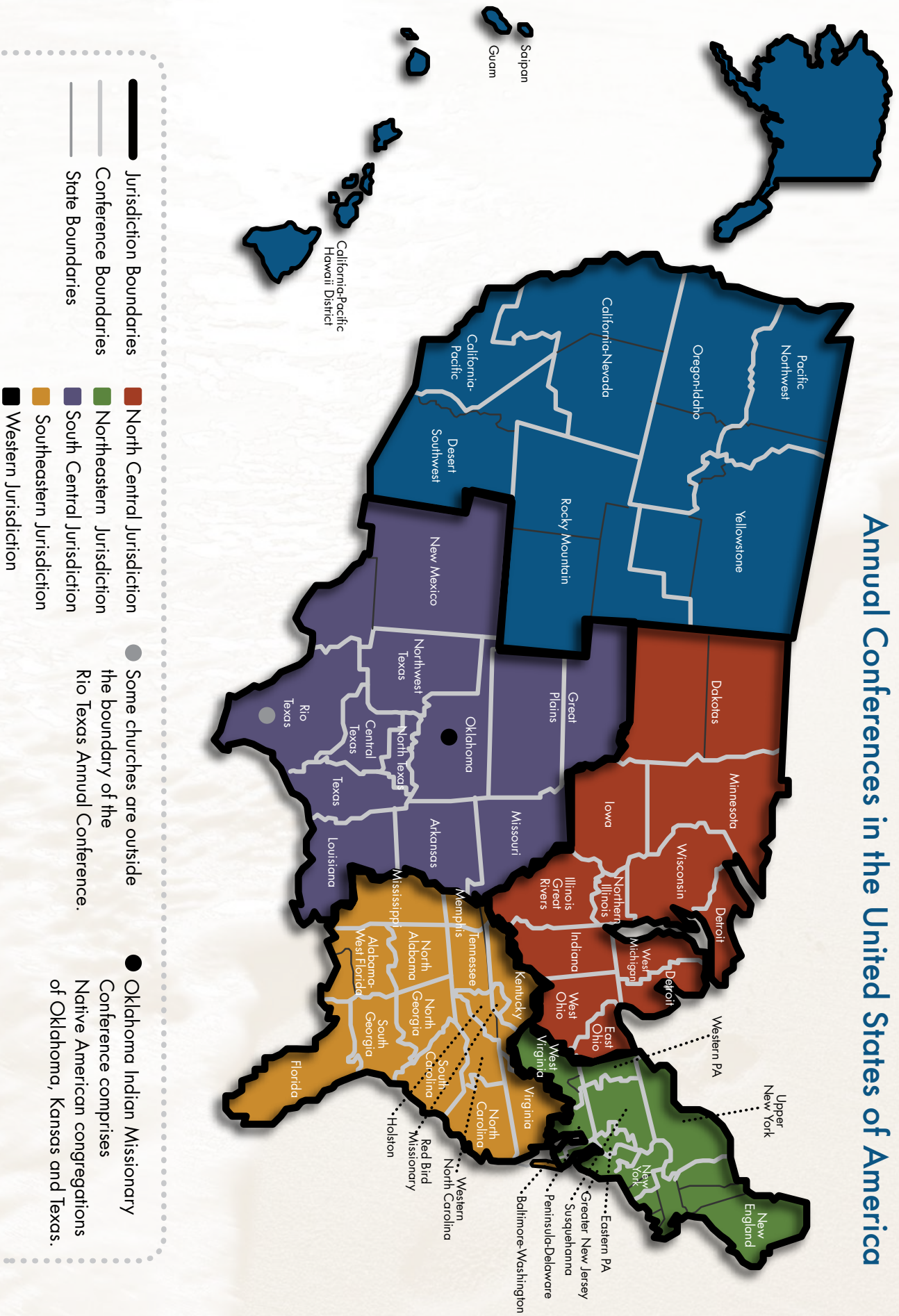
아프리카의 아이보리코스트에 코트디부아르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로 가입한다. 2008년 총회에서 미국 복음루터교회와 전적인 공조에 들어가기로 한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아이티와 일본의 지진피해복구와 다른 재해복구를 지원한다. 2012년 총회는 '미원주민과의 관계 치유를 위한 참회의 행동'에 참여한다. 아울러 교회는 여러 미 흑인감리교단과의 공조에 들어갔으며, 여선교회를 자치기관으로 만들고, 태평양 섬 주민을 위한 목회강화위원회를 설립했다.

2016년 총회는 향후 2020년부터 아프리카 지역, 동남아시아와 몽골 지역의 준 해외지역총회 및 르완다의 준 연회 등에 5명의 새 감독을 추가하기로 승인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외 지역의 구성원이 사법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된다. 오스왈드 트웁은 라이베리아 출신의 평신도로 2020년까지 의장직을 맡게 된다. 인간의 성에 관한 문제들은 세계적인 우리 교단의 지속적인 분란을 유발하고 있다.

2016년 총회는 총감독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와 토의를 한 후에 이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주제를 위한 특별총회는 2019년에 개최된다.



United Methodist Jurisdictions and Annual Conferenc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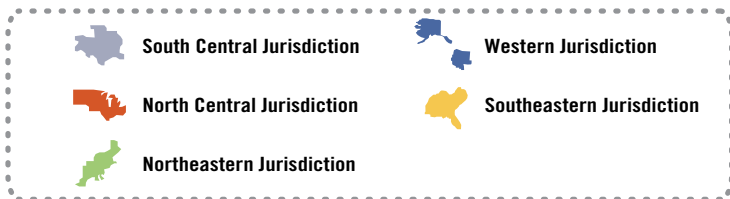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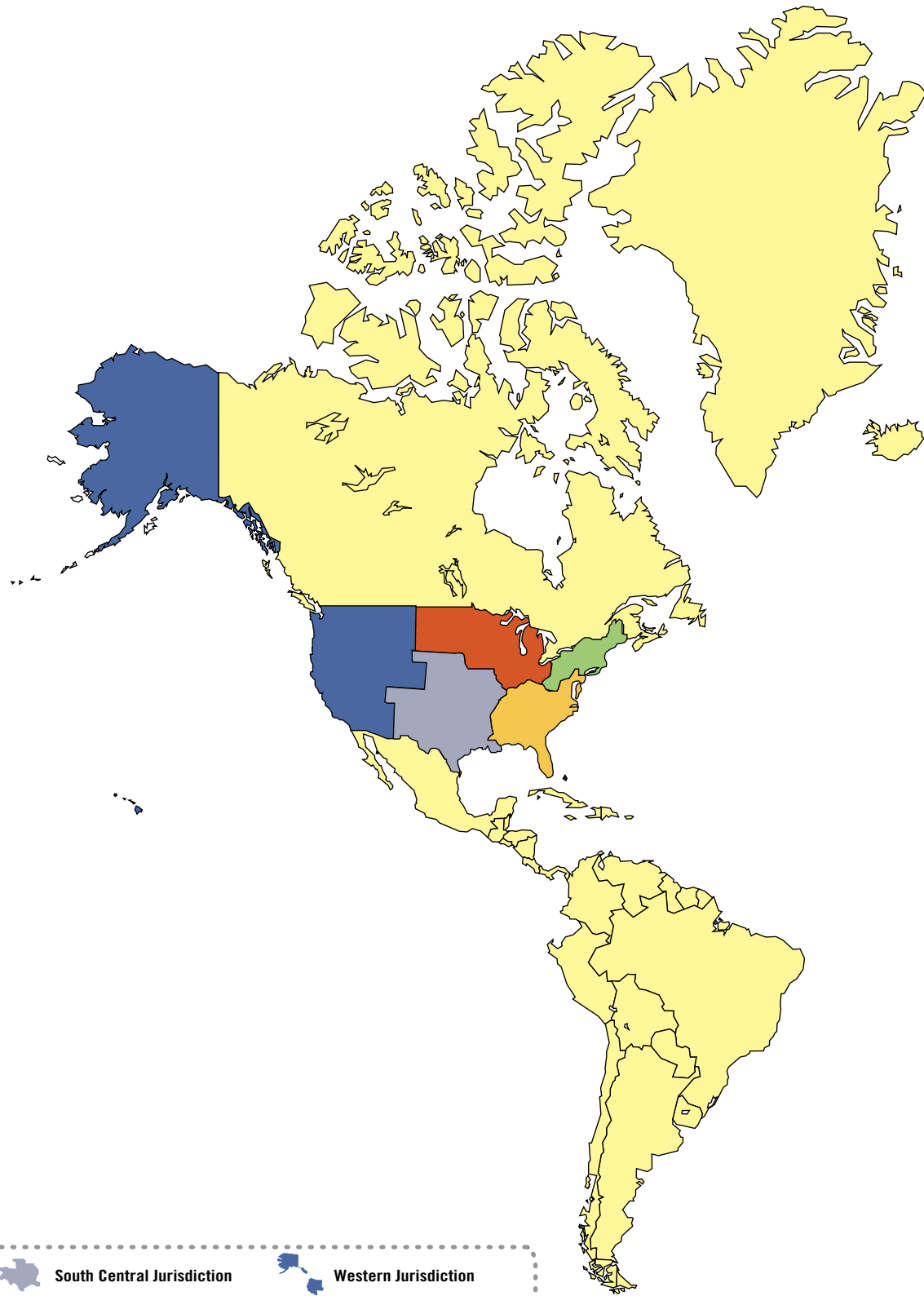


- Jurisdiction Boundaries
- Conference Boundaries
- State Boundaries
- North Central Jurisdiction
- Northeastern Jurisdiction
- South Central Jurisdiction
- Southeastern Jurisdiction
- Western Jurisdiction

● Some churches are outside the boundary of the Rio Texas Annual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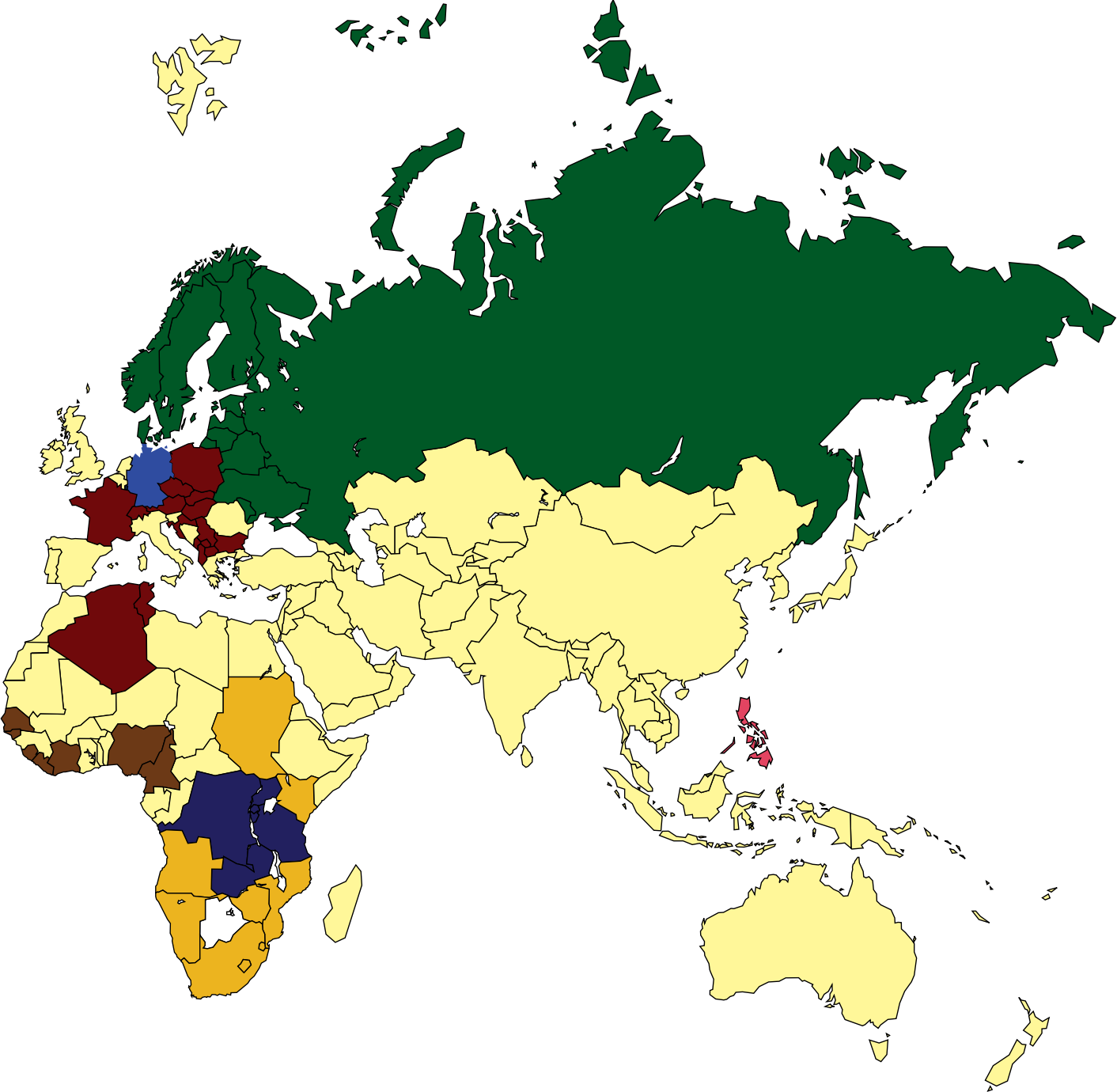
● Oklahoma Indian Missionary Conference comprises Native American congregations of Oklahoma, Kansas and Texas.

United Methodists Around the World



**Annual conferences and episcopal areas as of 2016*

Central or Jurisdictional Conference*



-  Africa Central Conference
-  Congo Central Conference
-  Germany Central Conference
-  West Africa Central Conference
-  Central and Southern Europe Central Conference
-  Northern Europe and Eurasia Central Conference
-  Philippines Central Conference



수많은 축복에 감사하며!

연합감리교회들의 연대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일반 헌금을 통해 세계적인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적인 사역을 신실하게 후원하게 됩니다.

각자 교회가 드리는 헌금이 연합감리교회 전체 교인들과 연합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제자를 만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신앙 여정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총회 분담금을 통해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감리교 계통의 대학과 신학교를 후원하고, 가난으로 인한 질병들을 퇴치하는 일을 돕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헌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소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서 하나 되어 세상에 유익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세상의 축복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Michael McKee

총회재무행정협의회 의장
마이클 맥키 감독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우리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적인 사역에 드는 비용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비용은 개체교회 예산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1달러의 헌금을 나누어 보면:

85 센트가

개체교회에서 사용된다.

6 센트는

구제기금으로 사용된다.

2 센트는

총회 분담금으로 보내진다.

7 센트는

지역총회, 연회, 지방회에 보내진다.

여러분 교회의 지출 수치는 여러분의 연간 구제비 지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
출처: 총회재정행정협의회 2015년 기준 자료(최근 자료도 준비되어 있다).

연대헌금이란?

연대헌금은 그 이름이 지시하는 바대로 연대 사역을 위한 헌금이다. 연합감리교회라는 이름에도 들어 있듯이, 우리는 서로 연결(united, connected)된 교회로서 개체교회들이 홀로 할 수 없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운영되는지 알기를 원한다.

연합감리교회는 헌금을 드리는 교인들의 기대대로 그들의 소중한 헌금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엄격한 구조와 절차가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일반 기금은 세심한 절차를 통해 각 연회와 개체교회들의 분담금으로 책정된다. 교단의 특별기금은 개체 교회에서 드리는 특별 주일 헌금과 특별 지정헌금, 및 기타 이차적 약정 헌금들은 교단의 특별기금으로 사용된다.

총회가 교단의 예산을 인준한 후에 이러한 기금을 마련하는 책임은 특정한 공식에 기초하여 각 연회에 분담된다. 각 연회와 해외지역총회는 연회 혹은 해외지역총회 별로 승인된 공식에 의해 연회 행정기금을 포함한 여러 요청된 기금을 개체교회들이 나누게 된다.

과거에는 해외지역총회들은 헌금을 통해 감독기금을 후원해 왔다. 2016년에 총회는 해외지역총회의 분담금들을 일반행정 기금, 감독기금 및 세계 봉사 기금 등에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또한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는 지정헌금을 통해 각자에게 의미 있는 선교와 사역에 사용할 수 있다.

연대헌금에는 분담금과 지정헌금이 있다. 작은 헌금들을 모아 큰 기금을 만들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대적인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선교분담금

세계봉사기금

세계봉사기금은 연합감리교회의 중추적인 사역을 위한 경제적 공급원이다. 2016년 장정은 [세계봉사기금] 총회 기관들의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체 교회와 연회들이 분담금을 완납하는 것이 교회 구제의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명시한다.(812조)

세계봉사기금의 후원을 받는 사역들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준비시키며, 젊은 교역자들을 늘려가고, 선교사들



의 사례비를 지급하며, 성경공부를 늘려가고, 청소년 사역을 위한 지도력을 제공하며, 연합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협력의 전통을 이어가고, 초교파적 전 기독교적 사역으로 다른 신앙전통을 가진 그룹들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교회의 약속을 나타내고, 교회의 성장과 제자화를 독려하고, 해외지역총회에 신학교육을 제공하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등 많은 일을 후원한다.

아프리카대학기금

아프리카대학기금은 아프리카대륙의 연합감리교회 관련 학교 중에 유일하게 학위가 인정되는 고등교육 기관을 지원한다. 아프리카 대륙의 25개국 출신의 학생들을 받아 기독교의 가치관에 근거한 우수한 고등교육을 제공한다.

아프리카대학은 남녀공학으로,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위해 꿈이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짐바브웨의 올드무타레에 위치한 이 대학은 농업 및 천연자원, 교육, 보건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경영학, 행정학 및 신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평화, 지도력, 통치 연구소에서는 대학원 학위와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대학기금을 위해 드려진 헌금은 교수와 교직원들의 사례비와 학교의 기반시설과 같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한다. 세계봉사기금을 위한 특별헌금을 통해 드려지는 헌금들은 장학금과 기부기금으로 사용된다.

흑인대학기금

미국 내 11개의 흑인대학은 미국의 고등교육에 있어 매우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흑인대학의 졸업생들은 교사, 의사, 목사와 감독, 판사, 예술가, 운동선수 및 사업가 등 사회의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되었다. 흑인대학기금은 미국 내 11개의 흑인 대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흑인대학을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미시시피주 러스트 대학의 졸업생이자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인 케빈 코쉬 목사는 “러스트 대학 덕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었고, 리나 맥코드 프로그램(흑인대학기금을 통해 추진된 프로그램)을 통해 신학교 교육을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교육, 평등과 진취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유산의 혜택을 입음으로써 끊임없이 나의 뿌리를 기억하게 되고 후대를 위해 더욱더 나은 세상을 남겨줘야 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흑인대학기금은 아래의 대학들을 후원합니다.

- Bennett College, Greensboro, N.C. (www.bennett.edu)
- Bethune-Cookman University, Daytona Beach, Fla. (www.bethune.cookman.edu)
- Claflin University, Orangeburg, S.C. (www.claflin.edu)
- Clark Atlanta University, Atlanta (www.cau.edu)
- Dillard University, New Orleans (www.dillard.edu)
- Huston-Tillotson University, Austin, Texas (www.htu.edu)
- Meharry Medical College, Nashville, Tenn. (www.mmc.edu)
- Paine College, Augusta, Ga. (www.paine.edu)
- Philander Smith College, Little Rock, Ark. (www.philander.edu)
- Rust College, Holly Springs, Miss. (www.rustcollege.edu)
- Wiley College, Marshall, Texas (www.wileyc.edu)

감독실 기금

감독은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관심사를 감독하고 증진한다. 감독은 교회의 사역을 감독하는 중요한 임무를 위해 선출되고 성별된다. 총회가 교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지만, 감독들은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또한 교회의 관점에서 말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우리는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감독과 연합감리교인들은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갖는다—감독은 교회를 섬기고, 감독실 기금을 위한 교인들의 헌금은 감독들의 사역을 후원한다.

총회행정기금

총회행정기금은 교회의 일반적인 행정기능을 보증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총회행정기금은 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총회행정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는 교회의 입법기관인 총회와 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가 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는 교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판결을 집행한다. 연합감리교회를 형성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교회의 역사도 이 기금을 통해 유지된다.

총회행정기금의 중요성은 신실함을 지키려는 연합감리교회의 확고한 헌신으로부터 출발한다. 연합감리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번안한 유진 피터슨의 입장을 취한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이 헌금 가운데 한 푼이라도 착복한다는 의심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판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평판도 두려워하면서 조심합니다.”(고린도후서 8:20~21, 메시지성경)

교회연합사업협력기금

교회연합사업협력기금은 연합감리교회가 같은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고,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세계 평화와 정의를 옹호하면서 전 세계에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일치를 확증하도록 돕는다. 교회연합사업협력기금은 연합감리교회가 여러 국내 또는 세계의 교회일치운동 기관들의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한다.

교역자양성 교육기금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의 사역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역자양성 교육기금의 수혜를 입은 것이다. 교역자양성교육기금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미국 내 13개의 연합감리교회 신학교는 신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뜻에서, 교역자양성교육기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학교 후원 이외에도, 교역자양성교육기금은 본처목사들의 교육과정과 현직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을 지원한다. 교역자양성교육기금은 신학교를 후원하고 오늘날 목회 현장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 기금은 신학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 내 13개의 연합감리교회 신학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중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데 이바지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gbhem.org/education/semina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 신학교들

-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Boston (www.bu.edu/sth)
- Candler School of Theology, Emory University, Atlanta (candler.emory.edu)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lif. (www.cst.edu)
- Drew Theological School, Madison, N.J. (www.drew.edu/theological)
- Duke Divinity School, Durham, N.C. (divinity.duke.edu)
- Gammon Theological Seminary, Atlanta (www.gammon-itc.org)
-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Evanston, Ill. (www.garrett.edu)
- Iliff School of Theology, Denver (www.iliff.edu)
- Methodist Theological School in Ohio, Delaware, Ohio (www.mtso.edu)
- Perkins School of Theology,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allas (www.smu.edu/perkins)
- Saint Paul School of Theology, Kansas City, Mo. (www.spst.edu)
- United Theological Seminary, Dayton, Ohio (www.united.edu)
- Wesley Theological Seminary, Washington, D.C. (www.wesleyseminary.edu)

지정헌금

특별지정헌금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특별 지정헌금은 지난 69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만여 곳의 선교지를 후원해 왔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선교사들과 관계를 맺고 선교 프로젝트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린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선교사들과 관계를 맺고 선교 프로젝트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린다.

프로그램의 분야로는 선교사 지원, 재난 구호, 세계 보건 개선, 건설, 상하수도 시설 구축 및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있다.

특별지정 선교헌금은 연합감리교회의 책임 있는 지정헌금 프로그램으로써 교회와 개인과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와 프로젝트들을 후원하도록 연결하는 주된 통로의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드러진 모든 헌금이 원래의 의도된 선교와 사역을 위해 전액 사용되도록 돕는다. 특별지정헌금은 전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승인된 프로젝트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전체적인 목표에 부합되고 상호 도움이 되는 파트너 관계를 계발하도록 한다.

총회세계선교부에서는 특별지정헌금들을 모으고 집행한다. 특별지정헌금은 각 지역의 재무담당자나 회계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된다. 행정적 비용은 특별지정헌금에서 사용되지 않고, 세계봉사기금을 통해 충당된다.

세계봉사특별헌금

세계봉사특별헌금은 특별지정헌금이 지원되지 않는 세계봉사기관의 승인된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1984년 총회를 통해 승인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된다.

이 기금의 수혜자로는 아프리카대학기부기금, 감리교세계교육지도자개발기금, 전국도박방지프로젝트 및 평신도선교사지원 네트워크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모든 총회 이사회와 기관들은, 특별지정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장정에 명시된 기관의 사역에 직접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추천할 수 있다. 연대사업협의회는 이 기금의 사용 승인 기관이다.



특별주일헌금

인간관계주일

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중의 하나인 인종관계주일은 주현절 기간 중에서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탄생 기념일 직전에 있는 주일에 지켜지게 된다. 총회는 연합감리교인들이 이날을 기념하여 인종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지하는 날로 삼았다.

알칸소주 리틀락에서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말리익 사파 목사는 인간관계주일을 예수님이 전해주시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요약한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이들,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착취하는 곳으로 찾아가 그들을 만나주고,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호위원회 특별주일

구호위원회 특별주일은 연합감리교회의 구호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켜지던 "나눔의 주일" 새 이름이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2016년 총회를 통해 승인되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구호위원회 특별주일로 지키게 되며, 모든 연합감리교인들은 이 특별주일을 통해 세상의 고통받는 이들과 삶을 나누게 된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연대헌금은
연합감리교인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하도록
도와줍니다.*

텍사스주 코빙튼 출신의 평신도 지도자이며 은퇴 간호사인 메리 위팅턴은 "구호위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도 인류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라고 전한다.

인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구호위원회의 전 세계적인 사역에는 재난구호, 구호물자 조달, 재난 위험 예방 및 환경의 유지와 인도주의적인 개발 등을 포함한다. 미국 내에서는 각 연회에서 조직된 구호팀과의 동역을 통해 활동한다. 국제적인 차원으로는 구호위원회가 동역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또한 필요에 따라 각 국가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활동한다. 구호위원회는 현재 수단, 남수단, 짐바브웨, 콩고 공화국과 아이티에 다섯 개의 지부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짐바브웨의 카루라 지역은 그 지역의 상수원으로 카푸라 중학교에 있는 우물에 의존해 왔다. 이 우물이 붕괴 되었을 때 이 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그들의 가정들은 여러 달 동안 안전하지 않은 상수원에서 물을 구해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상수원의 손실과 함께 극심한 가뭄도 찾아왔다. 우물은 물의 양은 줄어들었거나 마르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짐바브웨의 카루라 지역은 그 지역의 상수원으로 카푸라 중학교에 있는 우물에 의존해 왔다. 이 우물이 붕괴 되었을 때 이 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그들의 가정들은 여러 달 동안 안전하지 않은 상수원에서 물을 구해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상수원의 손실과 함께 극심한 가뭄도 찾아왔다. 우물은 물의 양은 줄어들었거나 마르게 되었다.

그들은 연합감리교회의 구호위원회가 각 지방 관공서와의 협력을 통해 무너진 우물을 수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사람들을 교육했을 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해갈을 경험하게 되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우물 붕괴로 4개월간의 고생 끝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얻게 되자, 한없이 기뻐하게 되었다.

- 무코레라의 이야기에서 인용

미원주민 선교주일

"우리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합니다. 다코다연회의 미원주민 선교기금은 [어린이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문화 행사를 제공하는 데 매우 귀하게 사용됩니다. 문화행사는 15명의 미원주민들에게 여름 동안 직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한 기금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 북다코다연회의 스피릿레이크 선교센터에서 사역하는 마이크 플라워즈 선교사

미원주민 선교주일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에 지켜지며, 미국 원주민들의 선교를 지원하고 미국 내의 원주민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교단은 이 기금을 통해 도시와 농촌에서 원주민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고 원주민 목회자들을 모집하고 준비시키고 있다.

이 사역을 위한 헌금은 미국 전역으로 뿔어 나간다. 이 헌금의 수혜를 입은 2만 명의 미원주민 중 대부분이 오克拉호마 원주민 선교연회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이 사역은 플로리다주 최남단으로부터 알래스카주 최북단까지 방대한 지역의 목회를 후원한다.

세계평화주일

세계 평화주일은 성령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지켜지는데, 이날 드려지는 헌금은 각 연회와 총회사회부의 정의구현을 위한 평화 사역에 사용된다.

개인이나 개체교회 자체로는 무너진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연합감리교가 세계적 화해 사역을 지속하는 데 귀하게 사용된다.



우리가 세계평화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사용된다. 이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 애리조나주 국경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을 연합하는 평화 사역에 앞장선다.
- 라이베리아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들이 감리교 사회 원칙을 사회적 정의 이슈들에 적용하도록 준비시킨다.
- 펜실베이니아주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국내외 성매매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처음 선포한 설교를 통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누가복음 4:18~19) 세계평화주일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고대하던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

세계성찬주일

세계성찬주일은 10월 첫째 주일에 지켜진다. 세계성찬주일은 모든 연합감리교인이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과 함께 연합하여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양성의 본을 보여주도록 독려한다. 이날은 그리스도의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에베소서 4:5~6)라고 확증하는 날이다.

세계성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교회의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날에 드려진 헌금의 반은 총회 세계선교부의 주관 아래 세계성찬주일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반은 고등교육성직부를 통해 소수민족 장학금 프로그램과 소수민족 현지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은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지켜진다. 이 특별헌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연합감리교회 지원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은 교회가 연합감리교회 학생들의 믿음에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다.

장학금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총회 고등교육사역부의 장학금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고등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들은 미국내의 인가받은 대학에 등록된 학생들이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 A. 이 핸드북을 포함하여 유용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 있다.
- 교단의 공식 웹사이트인 www.umc.org는 교리와 신앙, 역사, 구조, 조직, 행정적인 정책과 관행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 <http://training.umcom.org>에서 무료 온라인 과정이 제공되고,
 - 연합감리교회 출판국의 판매책인 www.cokesbury.com은 다양한 서적과 교과과정을 제공하며,
 - www.umcgiving.org는 분담금에 대한 자료와 특별지정 선교헌금 및 특별주일헌금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Q. 구호기금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A.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는 자연재해 시 비상식량, 임시 거처 및 의약품을 제공하고,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구호 활동을 하며, 기아와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헌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드려질 수 있다. 전액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헌금은 드려진 전액이 모두 지정된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교회와 개인들은 가정에서 구호물자 세트를 포장하여 보내거나, 재료 창고에서 구호위원회의 물자와 대규모의 자재들을 포장하고 보급하는 일에 자원함으로써 구호위원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특별주일에 헌금을 통해 후원할 수 있다. 구호위원회 특별주일에 드려진 헌금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위원회가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호위원회가 위기에 즉시 대처하고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돕기 위해서는 연합감리교회인들의 헌금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특별주일 헌금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사용된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특별주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www.umcgiving.org/umcor을 찾아보면 된다.

Q. 안수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침서와 자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A. 안수 과정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담임목사나 다른 목회자 또는 감리사와 만나보라고 권장한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갖춰야 할 자격요건은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이거나, 연합감리교회가 인준하는 학원 선교나 교단의 기타 목회 현장에 1년 이상 참여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담당 목사들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가질 수 있다. 안수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총회 고등교육사역부의 공식적 웹사이트인 www.gbhem.org를 방문하면 된다.

더 알고 싶으면?

연합감리교회의 정보 서비스인 InfoServ(infoserv@umcom.org)에 문의하거나 www.infoserv.umc.org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된다.



용어 사전

분담금: 국제적, 국가 내 지역적 (연회와 지방회)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각 연회나 해외지역총회가 각출하는 선교 비용을 지칭한다.

협동 목사(Associate member): 목회자 중에서 본처목사로 풀타임 사역을 4년 이상 마친 40세 이상의 사역자 중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5년의 소기의 교육과정을 마쳤거나, 또는 학사과정 혹은 동등한 과정 중 최소 6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연회의 안수위원회와 목회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칭한다. 협동회원들은 안수받은 사역자들은 아니지만, 풀타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연회의 파송을 보장받게 된다. 이들은 헌법의 수정안과 안수의 결정권과 연회의 목회자 관련된 조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항에 대해 표결권을 갖는다.

세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교회에 입교하는 절차로서, 세례는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성례전인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부음으로써, 안수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전해진다. 세례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치심을 선포한다.(에베소서 1:13) (2016년 장정, 제 129조)

자선: 이 용어는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와 사역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드러진 모든 금전적인 헌금을 지칭한다.

감독: 교회가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잘하도록 감독하는 임무를 위해 장로목사 중에 선출된 사람들이다. 감독은 기본적인 책임은 교회를 치리하는 일이다. 교회가 예배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감독의 책무이다.(2016년 장정, 제 401조). 감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umc.org/councilofbishop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정: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교단의 법률과 교리, 행정 및 조직의 사역과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시한다.



결의서: 교단 내 이슈들에 대해 총회에 승인을 받은 결의안들의 모음집이다. 최근 총회에서 승인된 결의안과 정책 성명뿐만 아니라, 연합감리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으로 고려되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모든 결의안의 문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고려된다.

연합감리교회 예배서: 연합감리교회와 관련된 모든 예식과 성례전 및 예배의 순서의 모음집이다.

구역: 안수를 받거나 자격을 갖춘 목회자가 감독의 파송을 받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단위를 지칭한다. 장정에 따라 조직된 구역은 구역회에 의해 관리된다.

구역회: 한 목회자가 파송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교회들로서 목회 구역의 기본적인 단위이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교회로 구성되어 일 년에 한 번씩 모이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구역회는 [목회자의] 사역을 검토하고, 안수 후보생을 추천하며, 목회자의 사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성만찬: 주의 만찬이나 성례전이라고도 불리는 성만찬은 세례와 함께 연합감리교회가 인정하고 지키는 두 가지 성례전 중 하나이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한 성만찬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대신하여(마가복음 14:22~24)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기를 기념한다. 성례전은 예배 시간 중 성경 봉독과 말씀의 선포(설교) 뒤에 행해진다. 예배자들은 장로 목사나 교회에 파송된 본처목사의 집례를 따라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참여한다. 예배자들은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기뻐한다.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여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A Service of Word and Table I” 인용. copyright © 1972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copyright ©1980, 1989, 1992 UMPH. 출판사의 승낙을 받고 인용되었음.)

“Together, we do more” is what actually happens when United Methodists pool their resources of prayers, presence, gifts, service and witness to do mission and ministry.

견신례(confirmation): 유아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혹은 다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스스로 세례 문답에 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견신례는 세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견신례 예문은 연합감리교회 찬송가의 세례 예문1에 포함되어 있다.

연대: 연대는 연합감리교회의 기본 원리로서, 연대의 체계 안에 모든 지도자와 교회는 서로에 대한 신의와 책임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집사목사(Deacon): 안수를 받고 연회의 회원이 된 목회자로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사역을 인도한다. 특히 세상의 가난하고 아프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사역을 담당하고, 평신도들이 긍휼, 정의, 봉사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집사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장로목사의 성례전을 돕고, 주 정부의 법이 허용할 때에 결혼식을 주례하고, 장례예식을 인도한다.



지방회: : 지방 감리사가 치리하는 교회들의 지역구이다. 같은 지방회의 교회들은 훈련과 선교의 기회를 공유한다. 지방 감리사는 구역회의 모임을 직접 주재하거나, 혹은 다른 장로목사들이 대신 주재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지방회 내의 프로그램들을 감독한다.

지방 감리사: 감독의 파송으로 6년의 임기 동안 지방 내의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을 감독하고, 영적 목회적 지도를 하며, 감독과 감리사들로 구성된 감독의 캐비닛(bishop's cabinet)을 통해 목회자들의 파송지 결정 과정을 돕는다.

장로목사(Elder): 일생 동안 봉사와 말씀의 선포와 성례와 교회를 치리하는 사역을 위해 안수받은 목회자이다. 장로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를 집례하고, 선교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치리하는 임무를 가진다.

총회기금: 교단의 여러 가지 사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이다. 총회 기금의 일부는 분담금으로부터 오지만, 일부는 교단에서 드러지는 특별주일헌금 및 특별지정헌금 등으로 지원된다. 총회재정책무협의회는 총회 기금의 회계 역할을 감당한다.

순회/파송: 감독이 목회자들을 개체 구역으로 파송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장로목사들과 협동목사들은 파송을 받을 의무가 있다. 현재의 파송 시스템은 감리교회의 목회자들이 순회지 내의 여러 교회를 순방하며 돌보던 형태로부터 발전하였다. 감리교회 순회목사들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복음을 널리 전파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평신도: 그리스어의 라오스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며, 회중이나 교구의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평신도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헌신에서 시작된다. 평신도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2016년 장정, 제 127조) 평신도들은 총회, 지역총회 및 연회에서 목회자들과 균등한 수의 대표성을 갖게 된다.

본처목사(Local pastor): 본처목사는 해마다 지방 안수사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회의 목회자회의 승인을 받은 목회자로 지방 감리사의 지도로 파송지에서 성례전을 포함하여 안수받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개체 구역으로 파송을 받는다. 지도 목회자는 본처목사의 교육과정을 감독하고 목회 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선교 연회: 선교 연회는 특정한 선교적 기회가 있으나 교인 수가 적고 자원이 부족하며, 지도자의 자격요건에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고, 전략적인 지역 혹은 언어적 특수성과 목회적 필요가 있는 연회이다. 총회세계선교부는 선교 연회에 행정적 지도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2016년 장정, 제 585조) 현재 미국 내에는 오클라호마 인디언연회와 레드버드연회 등 두 개의 선교 연회가 있다.

준 연회: 아직은 교인 수가 적어 연회를 구성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지만, 교인 수와 헌금 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연회들이다.

성례전: 성별 되어 거룩한 기독교의 예식으로,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체험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이다. 신약성서는 예수가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례와 성만찬이 연합감리교회가 인정하는 성례전이다.

사회원칙: 총회가 승인하고 장정에 포함된 문서로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을 제시한다. 교회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원칙들은 신실한 삶으로의 부름이며 [연합감리교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예언자적 정신을 살아내도록 지도하고 설득하는 목적을 갖는다.(2016년 장정, 제 5장 감리교 사회원칙에 대한 서문)



청지기: 돈과 시간과 재능을 신실하게 사용함을 의미한다. 성서가 기록되던 시대에는 청지기가 가정의 살림이나 소유지를 관리하였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기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 여기며, 소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베드로전서 4:10a)가 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찰스 웨슬리(1707~88): 영국의 감리교 지도자로, 많은 찬송곡의 작곡가이며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다. 5천여 곡의 찬송곡을 작곡했다고 전해지며, 그중 많은 찬송곡이 현재 연합감리교 찬송가에 포함되어 있다.

요한 웨슬리(1703~91): 영국의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이며 찰스 웨슬리의 형이다. 옥스퍼드대학 출신의 사제였던 요한 웨슬리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동료들을 모아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던 중에도 자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영국 국교회 내에서 감리교 운동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시도했고, 평생 성공회 사제로 남아 있었다. 1738년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마침내 오랫동안 고대하던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부흥 운동이 활발해 지면서, 웨슬리는 [교회 밖의] 가난한 사람들과 기존의 교회가 불편한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성전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 옥외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의 천부적인 조직력을 통해 감리교 신도회와 속회와 설교장이 세워졌고, 영국의 각 지역으로 평신도 설교가들을 보내는 순회 설교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미국에서 새로운 교단으로 발전되었고, 웨슬리의 사후에는 영국에서도 새로운 교단으로 독립하게 된다.

참조: 보다 많은 용어는 www.umc.org/glossa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효과적인 소통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교회는 사람들을 예배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이 되고, 회중을 선교와 봉사에 참여하도록 돕게 된다. 다음의 연합감리교회 자료들은 이러한 교회의 사역을 돕는다.

이 핸드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핸드북은 교회의 사역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로 개발되었다. 이 핸드북을 활용하고 지도를 공유하는 방법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이 다목적 자료는 우리의 연결된 교회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새 신자 양육반 • 유아 세례 확증 교육 • 청지기 양육 • 지도자 훈련 • 새신자 환영 자료집 • 교회 광고판
- 성경공부/제자양육 시간 • 재정부 모임 • 구역회 자료 • 예산 책정 • 선교부 모임

설명하고 영감을 받도록 합시다.

- 헌금을 드리는 방법과 분담금과 기타 헌금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분담금을 통해 모든 연합감리교인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연대적 헌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주일헌금 및 특별지정헌금, 그리고 그 외에도 활발한 사역을 위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이에 대한 자료는 www.umcgiving.org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 **연합감리교회의 헌금—분담금에 대한 신학**이라는 소책자를 포함하여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비디오, 글, 사진 및 기타 자료는 www.umcgiving.org/pastors/resourc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해하고 해석하자.

- 교회는 갈수록 많아지는 규정 준수의 책임을 져야 할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총회재무행정협의회는 공식 웹사이트 www.gcfa.org를 통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공한다.
- www.gcfa.org에서 *2017~2020 Financial Commitment*라는 소책자,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온라인 과정, 이사회의 안전한 포털 사이트, 목회자 세금 관련 자료집, 개체교회 구역회 양식, 월별로 정리된 교단의 재정보고 및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다.
- www.gcfa.org/happening-now에서 매년 새로 나오는 IRS 마일리지 비율과 목회자 사택비 보조에 관한 통지 등 교회의 재정 운영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자료들의 최근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유와 방법을 알자.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는 개체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을 제공한다. 더 많은 정보는 www.umcom.org/services-produc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연합감리교회 프로그램 달력(United Methodist Program Calendar)은 연중 사역의 계획을 지원한다. 달력은 다양한 양식과 스마트폰 앱의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다. 개체 교회의 달력 주문은 shop.umc.org/calendars에서 할 수 있다.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사역의 일환인 InfoServ는 연합감리교회의 공식적 정보 서비스이다. 공보부는 개체 교회와 세계적인 연합감리교회를 연결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한다. 웹사이트 www.infoserv.umc.org를 방문하거나 infoserv@umcom.org에 이메일을 보내면 InfoServ를 활용할 수 있다.



연대 헌금에 관한 자료

분담금, 특별지정헌금, 세계 봉사를 위한 특별 헌금 및 여섯 번의 특별주일 헌금등의 연대 헌금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나 사례 그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예배자료 및 기타 자료들을 웹사이트 www.umcgiving.org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헌금 노트 소식지

헌금 노트 소식지 구독신청을 하면 헌금을 독려하는 방법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구독 신청은 www.umcgiving.org/givingnotes에서 하면 된다.

선교의 순간 및 기타 자료(Mission Moments and More)

선교의 순간 및 기타 자료 구독 신청을 통해 감동을 주는 선교 이야기 및 교회력에 따른 헌금기도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 신청은 www.umcgiving.org/missionmoments에서 할 수 있다.

목회자와 지도자를 위한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는 연합감리교인들이 선교와 교회 사역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모을 때 일어나는 결과이다.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연대 헌금 팀의 온라인 자료 모음집이다.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헌금을 독려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아보려면 umcgiving.org/togetherwedomore 를 방문하면 된다. 이 자료들은 목회자들에게 포괄적/전체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여 넉넉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목회자들은 예배 시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분야는 넉넉한 나눔의 삶을 독려하기 위한 영감 넘치는 인용구를 제공한다. 내려받을 수 있는 주보 간지, 미니 포스터, 팟캐스트와 비디오 자료들은 예배시간이나 소그룹 모임 및 여러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헌금에 대한 광고 예화

및 슬라이드와 설교 예화가 예배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로 풍성한 헌금에 대한 소식을 나눌 수 있다. 어린이 설교를 위한 아이디어와 예화도 제공된다.

이 자료는 www.umcgiving.org/togetherwedomore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대헌금에 관한 온라인 과정

연대헌금에 관한 온라인 과정인 "선교 이야기: 넉넉한 드림의 문화 창출"은 헌금에 관한 총체적인 성서적 관점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이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넉넉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 과정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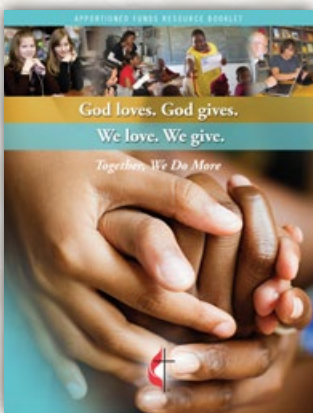


1. 헌금을 드리는 이유: 헌금에 관한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살펴본다.
2. 연합감리교회 연계: 연합감리교회가 서로 연결된, 연대적 교회임을 이해한다.
3. 넉넉한 드림의 문화를 창출한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 나눔이 헌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교인들이 기도와 시간과 재능과 증거의 삶뿐 아니라 헌금을 드리도록 권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무료 온라인 수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umctraining.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수업은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다. 수업 진행자가 수업 중 제기되는 질문에 답변을 도울 수 있다.

분담금에 관한 자료 소책자

#420515



분담금은 개체교회의 한계를 넘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 소책자 *God loves. God gives. We love. We give*(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주십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드립니다)는 연합감리교회의 용어인 "분담금"의 의미에 대해 궁금하거나, 분담금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소책자에는 헌금에 대한 개념과 간증 및 분담금이 지원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소개된다.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모든 연합감리교인을 세계 선교와 연결해 주고, 교인들이 직접 갈 수 없는 곳까지 찾아가 선교할 수 있게 해 준다.

연합감리교회 핸드북

(Therefore Go!) #429317



이 책자는 연합감리교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이 책자에는 교회의 조직 구조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 연회와 지역총회의 지도, 분담금에 대한 설명, 교회의 자료와 연합감리교회의 용어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책자는 평신도 지도자들과 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온 이들에게 유용하다.

이 책자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의 위원회와 총회 기관들과의 협력 및 www.umc.org 웹사이트를 참조하였다.

Discipleship Ministries

www.umcdiscipleship.org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www.umcjustice.org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www.umcmmission.org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www.gbhem.org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www.gcah.org

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

www.gcorr.org

General Commission o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

www.gcsr.org

General Commission on United Methodist Men

www.gcumm.org

General Council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

www.gcfa.org

The Connectional Table

www.umc.org/connectionaltab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www.umph.org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www.umcom.org

United Methodist Women

www.unitedmethodistwomen.org

Wespath Benefits and Investments

www.wespath.org

Photo credits:

제공된 사진들은 Africa University, Kats Barry, Andrea Booher, Alison Burdett, Claflin University, Benjamin Derkin, Beth DiCocco, Dillard University, Drew University, Mike DuBose, Eurasia Central Conference, Belinda Forbes,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Heather Hahn, Melissa Hinnen,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CUIR of The Council of Bishops, Paul Jeffrey, Andrew Jensen, Joe Jueng, Lucy Kennedy, Jacob Lee, Joanna Lindén-Monte, Dennis Loy, Meharry Medical College, St. Paul School of Theology, Nile Sprague, UMNS, UMCOR, Bob Vogt, Allexis Wilcox, World Service Fund, Cassandra Zampini 및 기타 개인과 기관들에 의해 제공받았다.

연합감리교회

이 자료들은 연합감리교회의 교인들이 세계봉사기금에 드린 헌금을 통해 마련되었다.

주문과 문의

추가 자료들은 koreanumc.org에서 e-book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추가 자료를 원하시면 www.umcgiving.org나 www.infoserv.umc.org를 방문하시거나
infoserv@umcom.org에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Open hearts. Open minds. Open doors.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